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의안 번호	12882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 의 자 : 김교홍 · 정점식 · 조계원
김준형 · 문진석 · 김남희
주철현 · 박지원 · 안태준
양문석 · 백혜련 · 정진욱
박 정 · 김 현 · 양부남
소병훈 · 김종민 · 이재정
곽규택 · 정성국 · 김준혁
송옥주 · 백종현 · 최민희
이정현 · 어기구 · 박해철
신동욱 · 조승래 · 김정재
송언석 · 한지아 · 서삼석
박균택 · 채현일 · 김영배
전진숙 · 박정현 · 허성무
이해식 · 윤종균 · 최혁진
김용태 · 조배숙 · 조은희
정태호 · 정희용 · 강대식
배준영 · 이만희 · 이상휘
최형두 · 윤재옥 · 서천호
김미애 · 김도읍 · 최수진
김승수 · 강선영 · 박정하
임이자 · 윤종오 · 전종덕
한창민 · 손명수 · 박충권
권향엽 · 곽상언 · 고민정

김문수 · 서영교 · 이재관
허영 · 이광희 · 한준호
추미애 · 이성윤 · 이병진
박선원 · 허종식 · 한병도
김동아 · 이성권 · 강경숙
이훈기 · 김상욱 · 손솔
오세희 · 김영호 · 김재원
박희승 · 용혜인 · 문대림
김현정 · 조인철 · 김주영
정일영 · 이기현 · 민홍철
권칠승 · 임오경 · 백선희
조승환 · 이수진 · 조정식
진성준 · 정준호 · 임호선
박수현 · 서일준 · 송기현
이해민 · 차지호 · 강선우
김영진 의원(115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며,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시대적 사명임을 선언하며, 이에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살 예방 정책 우선순위 지정 및 법제도 개선

국회와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생명존중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정신 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지역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표준화된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2. 자살 예방 사업 재원 확보 및 확대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GDP 대비 최소 0.05% 이상(2025년 기준 약 3,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 자살예방센터 확대 설치, 위기 개입 프로그램 운영에 우선 투자한다. 특히, 자살고위험군(고령층, 청년·청소년, 취약계층 노동자,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전용 지원 예산을 신설한다.

3.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신설과 통합 관리

자살예방을 위해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조속히 신설한다.

4. 자살 위기 조기 발견 및 상담 접근성 강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 위기 징후 인식 및 정신 건강 문해력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와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과 같은 디지털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국어 및 청각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GDP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위상을 자랑하지만,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4.3명, OECD 평균 10.6명)을 기록하며, 국민의 정신 건강 보호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간과하고, 체계적인 법·제도 정비와 재원 투입이 부족했던 점에서 비롯된다. 이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

이에 국회와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모든 국민이 희망과 안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안한다.